

# 국어·수학 대신 토끼와 놀기... “동물 돌보며 사랑 배워요”

### 선우학교, 농진청 지원 광주 첫 동물매개교육프로그램 진행 지적·청각장애 227명 재학...집중력 높아지고 성격 밝아져

“자, 이제 토끼를 이름을 다 지었으니 동물 친구들 만나러 나가볼까요!”

지난 4일 낮 12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자리잡은 선우학교.

고교 1-1반 농업생명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외래강사 원준소 소장(치유농업연구소 동물매개심리상담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학생들의 얼굴이 달처럼 밝아졌다. ‘선우학교 학교강종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교실 수업이 끝나고 야외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학생 5명과 함께 1층 야외로 나가보니 토끼사육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크기는 3평(10㎡) 남짓, 나무로 만든 토끼 보급자리였다. 문을 열고 원 소장이 앞장서 들어가니 유희, 승지양, 성준, 영준(이상 가명)군이 졸졸 따라 들어갔다. 그러곤 곧바로 “와!”하고 즐거움 비명이 쏟아진다. 태어난지 3개월된 새끼 토끼를 마주한 탓이다. 한 눈에 봐도 수업 참여를 열심히하던 승지가 먼저 토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고 쓰다듬더니 가만히 말을 건넨다.

“토끼야 잘 지냈니. 네 이름은 앞으로 ‘퐁당’이야! 내가 너 주려고 이름표를 만들어왔어”

동물치유 전문가인 원 소장과 승지가 스스럼없이 토끼들을 안고 쓰다듬는 것을 본 다른 친구들도 앞다퉈 토끼를 만지겠다고 나서자 사육장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저마다 토끼를 품에 안거나 쓰다듬던 아이들은 바로 전 교실에서 30여분간 온 신경을 집중해 만들어 온 이름표를 목에 걸어 주느라 바빴다.

“토끼야 네 이름은 ‘달님’이야, 알았지?”, “넌 앞으로 예뻐야, 예뻐”, “네 이름은 구름이고 너는 별, 그리고 너는 수니야. 알았지”

사육장에서 토끼와 어울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김금희 영양사가 눈을 가리게 흘린다. “교실 수업 시간과는 완전 딴판이다. 너희들- 완전 신났어!”

불과 5분 전 교실에서 토끼 이름을 지을 때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가던 학생,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괴상한 지르던 학생, 이름표를 만드는데 손도 까딱하지 않던 학생이 있었는데, 토끼와 만나더니 웃고 떠들며 적극적으로 변한 아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학생들은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을 갖고 있거나 더러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등을 동시에 지닌 중복장애를 겪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선우학교에서 진행된 ‘학교 강종’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끼를 쓰다듬으며 교감하고 있다. 학생들은 올 한해 동안 진행되는 반려동물 활용 치유수업에서 토끼 이름 짓기, 토끼집 꾸며주기, 토끼 분변을 활용한 퇴비 만들기, 감정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올 한해 동안 진행되는 반려동물 활용 치유수업에서 토끼 이름 짓기, 토끼집 꾸며주기, 토끼 분변을 활용한 퇴비 만들기, 감정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학교 측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광주시 지원으로 진행되는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올초 광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동물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김금희 영양사는 “아이들이 토끼와 다르게 더디게 자라고 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토끼만 만나면 활짝

웃고 밝아지는 아이들을 보니 만족, 또 만족”이라며 활짝 웃었다.

학생들은 동물매개교육 전공자인 원 소장 지도 아래 매주 2시간씩, 1년간 토끼를 활용한 동물매개 수업을 받는다. 지난달 28일 새끼 토끼를 분양받아 입학식을 치렀고 이날이 두번째 수업이었다. 남은 시간 동안 강종 노래 만들기, 강종이네 집 예쁘

게 꾸며주기, 강종이 먹이주며 교감하기, 강종이 간식 만들기, 강종이에게 비밀 털어놓기, 강종이 분변으로 텃밭 퇴비 만들기, 강종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생 등에 대해 배운다.

원 소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워낙 좋다. 토끼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생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기르

고 속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공립으로 문을 연 선우학교에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또는 두가지 이상의 장애를 안고 있는 22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장애인 학대조사 방해하면 징역 5년 비리사학 관계자 복귀 어려워진다

장애인 학대신고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위계나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 간에 동행해 달라 고 요청해야 한다.

/김현영 기자 young@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과 관련된 이들이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또는 교육청)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새 시행령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다시 불볕 더위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광주	맑음	20/30	보성	맑음	17/28
목포	맑음	20/26	순천	맑음	20/30
여수	구름맑음	20/27	영광	맑음	18/26
나주	맑음	19/29	진도	맑음	19/26
완도	구름맑음	19/28	전주	맑음	19/28
구례	맑음	18/29	군산	맑음	18/25
강진	맑음	19/29	남원	맑음	19/28
해남	맑음	18/28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8/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0.5~1.5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2:35	07:23	19:43	
	08:16	02:00		
	20:33	14:39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1(목)	☀	19/30
22(금)	☁	19/29
23(토)	☀	19/31
24(일)	☀	21/31
25(월)	☁	21/27
26(화)	☁	20/28
27(수)	☁	23/37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국립목포대학교

**열정이 있는 당신**  
목포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지역과 함께하는  
**국립목포대학교**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BEST 5

1. 저렴한 등록금(연간 평균 390만원)
2. 풍부한 장학혜택(연간 평균 302만원)
3. 전 노선 무료 통학버스 운영(2019년 부터)
4. 편안한 학생생활관(신입생 50% 우선 배정)
5. 원스톱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지역의 인재에게 꿈과 희망을!

간호학과 이소리

2019학년  
신입생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9. 14.(금)
- 접수문의 : 061-450-600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중국어어문학과/일어일본학과/독일언어문화학과/사학과/고고문화인류학과/인문학부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도시및지역개발학과/사회복지학과/사회과학부/법학과/행정학과/정치언론홍보학과/공공인재학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화학부/생명과학과/기초과학부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원예생명과학트랙, 해양수산자원트랙, 한약자원트랙, 식품영양트랙)/간호학과 공과대학 기계 신소재공학부(기계공학트랙, 신소재공학트랙) 조선해양공학부(조선해양설계트랙, 조선해양생산트랙)/스마트운송기계 신소재공학부/전기및제어공학과/전자 정보통신공학부(정보전자공학트랙, 정보통신공학트랙) 에너지CT공학부/컴퓨터공학과/융합소프트웨어학과/정보보호학과/컴퓨터 정보보호학과/건축 토목공학부(건축공학트랙, 토목공학트랙)/식품공학과 환경공학과/조경학과/미래사회공학부/건축학과(5년제) 경영대학 경영학과/경제학과/무역학과/금융보험학과/관광경영학과/전자상거래학과/경상학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아동학과/패션의류학과/생활과학부/음악학과/미술학과/체육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유리교육과/영어교육과/수학교육과/환경교육과